

01 교회소식**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는 지혜로, 코로나19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선교 현장.

02 생명의 말씀**‘가나안 정복사’ 시리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신 이유는 자신들의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순종케 하시기 위함이었다.

03 사랑의 메시지**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뜻과 선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한 눈으로 한 마음 한 뜻 되어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한다.

04 간증**“변화되고자 하니 응답받았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받은 뒤 갖가지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은사집회를 통해 응답받는 등 국내외 성도의 간증.

만민뉴스

제921호 2020년 6월 7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성도들이 더욱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만민교회)



얼마 전까지 러시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돼 팬데믹(대유행) 상황을 겪었습니다. 현재는 약간 줄어 조심스럽게 상점들이 문을 열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속히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 시련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기도 그룹을 만들어서 매일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으며, 토요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온라인으로 예배 및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접속자수가 저희 교회 성도수보다 훨씬 많은 수천 명에 이르는 것을 보며 인터넷 선교가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와 접속자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쉴로미 아브라모브 목사 (이스라엘, 깨어라 이스라엘교회)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처럼 바이러스 발생 초기부터 엄격하게 봉쇄 정책을 유지했고, 현재 상황은 전보다는 양호합니다. 모든 것이 천천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온라인을 통해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셜 미디어와 줌(Zoom: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성도들과 소통하며, 지역 목회자들과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센터를 방문해 담요를 무료로 나눠주었고, 학교에는 신발과 가방 등을 전달했습니다. 한 기관에 방문했을 때, 간호사들과 관리인은 바깥문으로 나와 저희의 구호품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정통 유대인 학교에서는 저희와 만민에 감사하다는 감동적인 편지를 보내왔고, 시에서도 연락이 와서 돋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소망을 가질 많은 이에게 이재록 박사님의 저서를 배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소망 없이 주님을 모른 채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민, 너무 그립고 사랑합니다.

“저희는 당회장님과 만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크 바잘레프 목사 (미국, 월드성결센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 미국 플로리다 주는 이제 조금씩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상점이나 사회활동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저희 센터에서 코로나 격리 이후 첫 번째 예배와 성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성도들이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부의 방침을 지키는 가운데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과 5월에 저희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 만민중앙교회,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 사태를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6월부터는 성도들과 같이 모여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매일 전화와 메시지로 성도들과 대화하며 위로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위한 사랑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늘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 만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 성도가 지킴 받았습니다”

그리고리 콜레소프 목사 (에스토니아, 진리의 근원교회)



에스토니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모든 상점, 사회활동, 학교 등이 멈췄고, 2m 이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임을 가지 수 없게 되었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래 전부터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러시아어 녹화 영상으로 진행해왔기에 온라인 예배 전환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짐없이 예배와 기도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신앙서적을 기본으로, 스카이프(Skype)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일꾼들은 전화와 메시지로 성도들에게 영적인 심방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 안에서 모두 지킴 받아 아무도 아프지 않고 잘 지냅니다. 다만, 나라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 사랑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는 성결의 복음을 전하며 만민과 함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회장 이재록 목사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출애굽기 16:11~15)

애굽 왕 바로는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주지 않으려 했지만, 마지막 재앙을 당한 후에는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애굽 전역의 대를 이어갈 장자와 처음 태어난 생축이 하룻밤 사이에 모조리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는 급히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떠날 것을 명합니다. 바로의 고집으로 인해 엄청난 재앙을 당해야 했던 애굽 백성도 많은 은금 패물과 의복 까지 주면서 속히 나가도록 재촉했지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1.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에 행하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평안도 잠시, 홍해에 이르렀을 때 바로 왕이 특별 병거 육백승과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추격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지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모세가 억지로 끌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게 지켜 주셨지요. 이토록 놀라운 권능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 아니라 원망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큰 권능을 보여 주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자 진 앞에 있던 구름기둥도 그 자리로 옮겨 갔지요. 그러자 밤새 이스라엘 편에는 광명이 있는 반면, 애굽 군대가 있는 편에는 구름과 흑암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윽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었습니다. 그러자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

더니 놀랍게도 거대한 바닷물이 수직으로 일어나 벽이 되었지요. 어린아이와 노인을 포함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양 떼와 소 떼 등 어마어마한 생축이 바다 한가운데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홍해를 모두 건너자 모세가 다시 바다 위로 손을 껴습니다. 그 순간 갈라졌던 홍해가 순식간에 다시금 합쳐져 애굽의 군대는 모두 수장되고 말았지요(출 14장).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은총에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배했습니다(출 15:1~18).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든 여인도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출 15:20~21).

홍해를 가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생각, 이론을 동원하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이지만 모세가 이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일들은 영적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2.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간구한 하나님의 종 모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길을 가는 동안 마실 물이 떨어진 데다가 마라에 이르러서는 물을 발견했지만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내 모세를 원망합니다(출 15:22~24).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은 고사하고 불과 사흘 전에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거침없이 원망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후에도 멱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면 만나를 주셨고, 만나에 싫증이 나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 마음껏 고기를 먹게 하셨으며, 쓴물조차 없는 곳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모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마다 느껴야 했던 모세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믿음이 없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간구해야 했고,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진리를 가르쳐 믿음을 심어 줘야 하는 짐까지 지고 있었지요. 심지어 자신의 영혼을 담보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간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일례로, 모세는 40일간이나 금식하며 기도해 백성들을 위해 십계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후 아무런 소식이 없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며 먹고 마시며 즐겼지요.

백성들의 범죄로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진멸시키겠다고 하시며, 모세를 통해 새로운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강정하지요(출 32:31~32). 이러한 모세의 절박한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3. 시내산에 이르러 십계명과 율례를 주신 하나님

오랜 세월 애굽에 종속되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법과 질서가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간에 벌어지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법을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성결케 하신 후 십계명을 비롯한 율례를 주시기에 이릅니다.

십계명은 겉으로 보기에는 계명이요 율법이지만 하나님 구원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더욱이 무조건 계명을 정하시고 강압적으로 지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수많은 권능의 역사를 체험케 하심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하셨지요. 십계명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하는 준엄한 기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 구원이 결정지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곧 성경 66권의 종집합체로 십계명의 영적인 뜻을 바로 알아 지킨다면 누구나 그 뜻을 깨닫고 행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홍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절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동부]	4:00 PM
다니엘절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로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송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막으로 오늘날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눈으로 보고 만져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속성을 아셨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느낄 수 있도록 성막을 짓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도록 하셨지요. 또한 성막은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례의 말씀이 제정된 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속죄하는 장소로서 필요했습니다.

4. 이스라엘 민족에게 권능을 나타내신 이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보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끊임없이 시험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수많은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이 장성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변화될 것을 기대 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또한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진리로 마음을 할례해 빛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영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열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셨고, 흉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 주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성결한 처소 곧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지요.

이처럼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려면 더럽고 추한 죄악을 버리고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정녕 마음 중심에서 믿으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오직 감사하고 기뻐하며 믿음의 행함을 보여야 하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침노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믿음의 한 눈으로,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의 힘과 지혜로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너무나 쉽고 신속하게 해결되는 것을 무수히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의 훈련들을 통해 스스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행군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모두가 한 믿음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자”라고 한 목소리를 내며, 믿음의 한 눈으로 바라보고 한 마음 한 뜻 되어 힘찬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벼랑에서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것처럼 무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믿음 없는 사람이 한 것이라면 당연히 무모한 일이지만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행함입니다. 바로 벼랑에서 자신의 몸을 내던질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의 손을 펴서 자신을 받아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기에 그처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포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뛰어 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계가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만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장애물이 장애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 한계를 짓지도 않기에 불가능이라는 것도, 포기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본자세입니다.

자신의 성결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육의 모습이 발견된다 하여 낙심하며 포기하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결도 영적인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변함없으며 흔들림이 없습니다. 많은 일이 믿음으로 가능한 것처럼 성결도 능히 이를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노력해가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1~3)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 ‘믿음으로 바라보자’ 중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받은 뒤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루스 다리 베하라노 성도 (52세, 콜롬비아만민교회, 사진 앞줄 우측에서 두 번째)

2010년에 저는 엔라쎄 방송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전하시는 말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간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따뜻한 말씀이었지요.

이후 저는 이재록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의 악을 발견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으며, 영적 무지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과 교회를 만나 신앙생활 하기를 사모하며 가족과 함께 수년간 기도

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이재록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서울 만민중앙교회에 기도 요청 서신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2012년 장정연 담임목사님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콜롬비아만민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한 주일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응답임을 확신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쳤지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머니는 이날 영안이 열려 교회 안에 많은 천사가 함께하는 것, 그리고 형형색색의 빛과 큰 꽃 등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셨다면 행복해하셨습니다.

또한 소포로 ‘만민뉴스’(스페인어판)를 받아보았는데 내용들이 너무 새롭고 은혜로웠지요. 먼저는 가족 전도에 매우 유용했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가족 중 14명 넘게 등록했으며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처음 콜롬비아만민교회에 왔을 때 저는 많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15년 된 만성 위염으로 인한 위 통증과 출

혈, 잦은 구토 증세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25년 된 만성 죽농증 때문에 비강 내 염증, 두통, 고열 등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대부분 질병은 죄로 인해 온다는 것을 깨닫고 제 마음의 악과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장정연 담임목사님이 기도해 주심으로 이러한 질병들을 치료받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갑상선 기능항진증과 심계항진까지 치료받았습니다.

또한 올해 서울 만민중앙교회의 1월 은사집회 시에는 심한 어깨 통증을 치료받았고, 2월 은사집회를

통해서는 생리과다와 생리통을 치료받았습니다.

이전에 저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많은 질병으로 고통 받았고, 그 이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회장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갖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만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에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릎 관절염을 치료받고 아들의 녹았던 고막도 재생되었어요”

2019년 7월, 왼쪽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퇴행성관절염이었지요. 극심한 통증으로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고, 반대쪽 다리만 의지해 생활하니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물리치료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번은 왼쪽 다리를 질질 끌며 걷다가 길 한복판에서 넘어졌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서글프던지요.

올해부터 은사집회가 다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꼭 응답받으리라 다짐했습니다. 1월 마지막 주 만민기도원 집회에 계속 참석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상대에게 불편해 하고 혈기를 내고 심히 서운해했던 것들이 떠올라 마음 깊이 회개하였지요.

이후 이복님 원장님이 당회장님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실 때 왼쪽 무릎이 많이 호전됨을 느꼈습니다.

그 뒤 1월 31일 금요철야예배 은사집회에 참석한 저는 회개찬양 시간에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너무도 황홀하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어 강사 이수진 목사님이 손수건 기도를 해 주실 때, 왼쪽 무릎에 파스를 붙인 것처럼 시원한 기운이 느껴지며 편안해졌지요.

통나무처럼 뻣뻣했던 왼쪽 다리가 지금은 부드럽게 움직이며 걷는 것은 물론 계단도 잘 오르내립니다.

저희 아들(박진현, 21세)은 갓난아기 때부터 잘 먹지 못해 뼈만 양상했는데 여섯 살 때 당회장님께서 기도 받은 뒤에는 뛰든지 잘 먹어서 지금은 건강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초등학생 때 중이염으로 고막이 녹아버렸는데 작년에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고막이 재생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김미희 집사 (56세, 3대대 24교구)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 010-6218-0703
- 남포향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 054)285-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 065-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정서길 36 ☎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 051)805-3898, 010-4999-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2길 27 ☎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 169번길 22 ☎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 061)652-8311, 010-2325-1228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률 2길 32 허미하우스 701호 ☎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 043)845-0671,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로 112, 5층 ☎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 010-9972-07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십대천로 1177번길 12 ☎ 031)635-9103, 010-2718-7458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 032)863-9857, 010-9972-074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 031)905-2419, 010-4710-9649